



교권·학생인권 충돌 넘어 미래 해법 모색

한국인권교육원, '세계인권선언 77주년 기념식' 성료

송영길 상임고문, 민주주의 실현 공로 '올해의 인권상'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한국인권교육원(이사장 위인백·원장 김재형)이 10일 개최한 기념식이 지역사회 인권 담론을 다시 정비하는 자리가 됐다.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교권과 학생인권을 둘러싼 교육현장의 갈등 구조, 시민사회가 직면한 인권 의제의 무게를 다시 묻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한국인권교육원은 1977년 국제앰네스티 광주·전남지부 활동을 기반으로 1999년 출범해 2001년 사단법인 인기를 받았다. 40여 년간 지역 인권 감수성 확산과 시민 교육을 꾸준히 지속해온 단체로, 매년 세계인권선언기념식과 학술세미나를 이어오며 지역 인권 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식전공연에서는 소프리노 김선희가 '그리운 금강상' 등 두 곡을 선보였다. 국제무대에서도 활약해온 김 소프리노의 공연은 이 날 기념식의 분위기를 차분하고 단단하게 이끌었다.

기념식에서 흥기대 광주·전남 앤메스티 이사장은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하며, 선언이 제정된지 77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인권은 현장에서 다시 해석되고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감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를 주제로 교육현장에서 반복되는 갈등의 구조를 짚었다. 그는 "교권 보호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대립이 아니라 공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한국 교육이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학교 내 안전과 신뢰의 약화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드러난 교권 침해 학생 인권 침해 사례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열린 학술세미나는 교육 현장의 실제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깊게 전개됐다.

발제는 강수영 전 전남도교육청 정학관이 맡았으며, 학교 인권 환경의 재설계,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재정립, 지역 간 교육격차 등 장기 과제를 제시했다.

정영일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은 좌장을 맡았고, 박삼현 광주교시노조 위원장, 최장현 광주승일고 교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교사와 학생이 모두 체감하는 현장의 긴장과 정책의 허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세미나는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 보장이라는 두 축이 충돌을 넘어 상생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하며 마무리됐다.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2024년 익명의 인권상'은 송영길 푸른아시아 상임고문에게 돌아갔다.

송 고문은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운동 참여 △노동 현장에서 약자를 대변한 인권 변호사 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국회 입법 활동 △지난해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서 현장 가치를 다시 환기한 일장 연설 등 오랜 기간 일관된 인권 실천 활동을 높이 평가받았다.

수상은 특정 개인의 공로를 넘어, 한국 사회가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인권 가치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인백 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은 "지역에서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확산하는 일은 시민과 교육·행정·시민사회가 함께 해야 할 공동과제"라며 "앞으로도 인권 친화적 사회를 위한 교육·연대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전남농기원, 청년농업인 육성 전국 1위…미래인재 전략 '결실'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 청년농업인 육성 대상 수상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자체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평가는 청년농 발굴·육성의 정책 효과와 창업 지원 성과, 맞춤형 교육·멘토링 운영, 사후관리 체계 등 청년농 지원 구조 전반을 종합 심사해 이뤄졌다.

전남농기원은 청년 유입과 정착을 위한 기반을 일蹴부터 체계적으로 구축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20년 전국 최초로 '청년창농기술팀'을 신설해 전문적인 지원 조직을 갖추고, 농업·농촌 인력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적 육성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장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농업과학기술 성과공유대회'에서 청년농업인 육성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해왔다.

성과도 뚜렷하다. 2021년에는 청년창농타운을 조성해 벤처 창업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2022년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청년농 스마트팜 경영실증 임대농장을 마련해 초기 농창업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2023년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4-H

회원 배가운동을 실천해 2143명의 신규

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는 청년 벤처창업 체계를 완비하며 창농타운 입주 기업의 첫 민간투자 유치로 이어지는 성과도 냈다.

이 같은 성과는 청년농업인을 중심에 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기반 강화 전략

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박웅철 전남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이번 대상은 청년농업인들과 함께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농업에서 미래를 찾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광주영신원에 아동·청소년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광주상의, 광주영신원에 후원물품 기탁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9일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광주영신원에 아동·청소년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김국환 신한은행 호남제주본부장, 구제길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최모세 광주 영신원장 등이 참석했다.

전달된 후원 물품은 1000만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이다. 물품은 공부방 리모델링, 노후 책걸상 교체 등 아이들이 학습에 전념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은 "우리 아이들이 미움끼 공부하고 꿈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한은행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는 지역경제의 견인성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동절기 취약계층 물품 후원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이웃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송대웅 기자 sdw0918@

(주)새비, 초록우산에 600만원 상당 물품 후원

새비

브랜드

주

로

우

산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

이

에

스

트

우

산</p